



Overweight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2026년 4월 3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미국의 NATO 탈퇴 위협 시즌2

NATO 회의론 변화: 경제 논리에서 군사 영역으로 전환

최근 미국의 NATO 회의론은 기존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에서 군사적 문제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3월 27일 “NATO가 미국을 위해 있지 않는데 왜 미국이 NATO를 위해 있어야 하나”는 발언에 이어 4월 1일에는 “미국의 NATO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31일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NATO 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재확인을 피하며 관련 판단은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비판은 주로 유럽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NATO 비판의 명분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다르다. 즉 NATO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단순 방위비 부담 등 비용 논쟁을 넘어 동맹의 군사적 유용성을 자체를 재평가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보다 제도/명분 측면에서 더 어려워진 미국의 NATO 탈퇴

NA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강도는 이전보다 강경해졌지만 실제 탈퇴 가능성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12월 미국은 상원의 2/3 동의 또는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대통령이 NATO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NATO 탈퇴는 과거보다 제도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5년에는 NATO의 모든 동맹국이 처음으로 GDP 대비 2% 국방지출 목표를 충족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유럽 주요국들이 실제로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부담 압박 논리를 감안하면 미국의 NATO 탈퇴 명분은 오히려 약해졌다. 종합하면 미국의 NATO 탈퇴 위협은 과거보다 강해졌지만 제도/명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탈퇴 실행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물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서방진영 방위비 증가로 이어지는 논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NATO 회의론 강화는 결국 서방 국가들의 추가적인 국방지출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일(4/1)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방산주 주가 반등의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BAE Systems +4.3%, Rheinmetall +8.6%, Thales +5.7%, Leonardo +8.5%, Saab +4.6%, Dassault Aviation +5.2%). 미국의 NATO 불만은 NATO 창설 초기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동맹 내부의 방위비 부담 조정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집단방위 의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동맹국들의 방위 자립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NATO 탈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유럽의 국방지출 확대와 방위 자립 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표 1. FII PRIORITY Miami 2026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NATO 관련 발언 원문 번역(3월 27일)

√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NATO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점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내가 형편없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에게도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죠. “에마뉼엘,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 예, 예”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즉시 우리는 합정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니, 아니,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필요 없다. 나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 있죠. 아시다시피, 아무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항공모함 두 척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썩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속도도 빠르지 않고, 제대로 잘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마 헬리콥터용 정도로는 쓸 수 있었겠죠. 그들이 “네, 물론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언제 준비되니까?”라고 물었더니, “한두 달쯤 걸릴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훌륭하군요”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 도와줄 겁니까?”라고 묻자, “네, 네, 도와드릴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NATO입니다. 나는 늘 NATO는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나는 늘 우리가 NATO를 돕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정말 큰 일이 벌어진다면, 장담하건대 그들은 우리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총리 말입니다. 이들은 다 내 친구들이에요.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음,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애초에 그 전쟁을 도울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시 대통령은 IQ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문제를 강제로 키우고 있고, 결국 trouble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trouble이 됐죠.

지난주에는 군인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입니다. 나는 여덟 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것도 그중 비교적 쉬운 전쟁 중 하나가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증오는 극심합니다. 전쟁을 끝내려 할 때 증오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전체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도움을 줬습니다. NATO와는 달리 말이죠.

√ 질문

“대통령님,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

“함께 뭉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NATO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량의 군사 장비조차 보내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란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
나. 나는 그것을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
다. 하지만 전쟁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
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
다.”

“우리에 가까운 나라는 없습니다. 나는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에는 언제나 예상 밖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나쁜 놀라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위험한 것입니다. 이겨야 할 전쟁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
다. 많은 전쟁들이 패배로 끝납니
다. 어떤 나라가 상대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착 자기들이 쏠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위험합니
다.”

“하지만 정말 큰 실수는 NATO가 그냥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미국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NATO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
다. 수천억 달러를 들여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
까?”

“이거 속보감 아닌가요, 아시르? 이게 속보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속보를 만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
다. 나는 계속 그렇게 말해왔습니
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있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있지 않았습니
다.”

자료: The WHITE HOUSE, 하나증권

주: 챗GPT 번역 사용

도표 2. Telegraph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기사 인용문(4월 1일)

트럼프는 전쟁 이후 미국의 NATO 회원국 지위를 재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다.

“오, 물론이죠. 나는 그것이 재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NATO에 결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이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 Reuters, 하나증권

주: 챗GPT 번역 사용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4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채운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채운샘)는 2026년 4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